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무주군, T/F팀 구성·지원 조례 제정·관련 부처·전북도에 유치 의지·당위성 전달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국비 1,700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을 구성한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

례'를 제정 중이다.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주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겼다. 무주군수를 단장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에서는 △기본소득사업 추진 및 총괄(농업정책과), △재원 마련(기획조정실), △인구정책 총괄(인구활력과) △무주사랑상품권 등 지역 경제 총괄(산업경제과)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인구는 2만 2천여 명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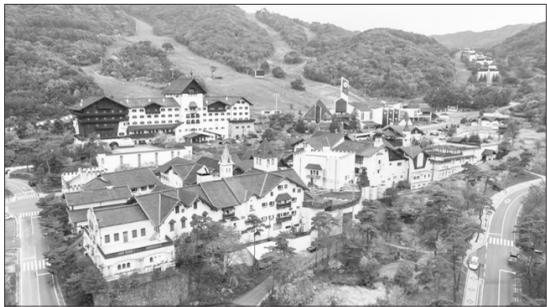
등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기본소득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시범사업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협력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 등 하반기 중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6개 군이 확정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반딧불축제 후원·할인 지원

관광 곤도라·그린벨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6월부터 오는 14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방문 고객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무주군을 대표하는 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는 올해 23회를 맞아 '자연을 품어 무주로의 힐링 여행'이라는 주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 낙화놀이, 어린이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경.

버스킹, 반디예술제, 반딧불이 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꾸준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 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무주반딧불축제 리플릿을 소지한 고객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객실을 특별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광곤도라, 그린벨리 등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객실/부대시설 할인은 무주군 반딧불축제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리플릿)을 다운받아 제시하면 된다. 객실은 유선 예약 후 체크인시 리플릿을 제시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필리핀 마라곤돈시, 계절근로자 협약 연장

근로자 복지 향상 등 합의

무주군이 지난 7일 필리핀 카비테주 마라곤돈시(시장 로렌스 아르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연장 절차를 밟았다.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은 2022년 8월 18일 처음 체결된 양 지자체 간 협력 관계를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고 앞으로 상호 간 협약에 이의 사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두 도시 간 신뢰를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와 있다.



무주군이 지난 7일 필리핀 카비테주 마라곤돈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연장 절차를 밟았다.

무주군청에서 만난 황인홍 무주군수와 로렌스 아르카 시장은 △계절근로자의 합법적 선발·송출 및 관리 강화를 통한 불법체류 방지, △근로자 인권 보호 및 복지 향상, △근로자의 권익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 환경 및 생활 여건을 함께 점검했으며,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양국 협력 강화

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필리핀 마라곤돈시 대표단 일행은 9월 6일과 7일 양일간 반딧불축제장 일원과 적상산 사고지, 안국사, 머투와인동굴 등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현장도 찾아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자연환경 및 문화·관광

자원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렌스 아르카 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곳에서 일하고 있어 안심이다"라며 "마라곤돈시의 인력이 무주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제1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료

도 장애인체전 11개 종목 출전

장수군장애인체육회가 지난 4일 장수군 한누리전당 산단관에서 '제1회 장수군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관내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화합을 다지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기쁨단체와 협약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종목별로는 론볼과 파크골프가 사진 경기로 치러졌으며, 본 대회에서는 보치아, 좌시배구, 미니농볼, 승린, 한국



족구, 레이저 사격, 단체 공 굴리기 등 다양한 종목이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이어갔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인식을 높이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에 나서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최훈식 장수군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돼 뜻깊다"며 "체육 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이번 경기를 바탕으로 오는 26일부터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에 11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며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은 지난 5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진안 원평지 들소리 가치규명 학술대회'를 열었다.

진안 원평지 들소리 가치 조명

학술대회 개최... 전북 무형유산 지정 신청 기초자료 마련

진안군은 지난 5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진안 원평지 들소리 가치 규명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유산청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에 선국대학교 손인에 교수의 원평지 들소리 및 농요 가치발굴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진안 마령면 원평지 마을의 전통 농요인 들소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진안 원평지 들소리는 마령면 원평지마을의 오길현 의 원평지 들소리 보존회를 중심으로 논매는 소리 8곡이 보존 및 전승되고 있으며, 지역 농경문화와 생활사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가치 규명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마련된 것이다. 학술대회는 조영배 교수가 사회를 맡아 총 4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1은 강릉원주대학교 강동학

명에교수의 한국 농요의 전국적인 판도와 전북민요를 △주제 2는 경인교육대학교 김해정 교수의 원평지 들소리의 음악적 양상과 특성으로 본 무형유산적 가치를 발표했다. △주제 3은 동국대학교 손인에 교수의 원평지 들소리에 나타나는 집과 ·장이 양상과 민요학적 의미를 △주제 4는 (전)전북대학교 김익두 교수가 전북민요의 전반적 성격과 진안 마령 원평지 들소리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전남대학교 이윤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목포대학교 나승만 명예교수, (전)중앙대학교 송화섭 교수, 순태도 (전) 판소리 학회장, 진안문화원 부원장 이상훈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농경문화와 생활사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가치 규명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마련된 것이다. 학술대회는 조영배 교수가 사회를 맡아 총 4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1은 강릉원주대학교 강동학

무주교육지원청, '반딧불 창작동요제' 개최

13일 무주 등나무운동장서... 창작동요 12곡 발표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이 오는 13일 오후 4시 무주 등나무운동장에서 2025 반딧불 창작동요제를 개최한다. 이번 동요제는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중 진행되며, 무주 초등학교생들이 무주의 아름다움과 애정을 담아 쓴 노랫말로 완성된 창작동요 12곡을 전국의 초등학교생 가창자들이 무대에서 선보이는 창작 중심의 음악 축제다. 특히 올해는 무주 관내 136명의 초등학생이 노랫말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작사 캠프 반딧불 노랫말 공모를 거쳐 최종 57편의 노랫말이 선정되었다. 이

렇게 선정된 노랫말은 전국 작곡 공모를 통해 82편의 곡으로 완성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12편이 선정되었다. 본선에 오른 창작동요 12편은 전주, 군산을 비롯해 서울, 부산, 거제까지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초등학생 가창자들이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무대에서 직접 노래로 선보인다. 이강 교육장은 "이번 동요제가 단순한 음악 행사를 넘어 아이들의 삶 속에 오래도록 추억을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026년 농업인 전문교육 과정 개설 수요조사

장수군은 2026년 농업 전문교육 과정 개설에 앞서 농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최신 농업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업인대학과 농군사관학교 교육생을 비롯해 읍·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답자들은 설문지를 통해 관심 있는 교육 분야와 희망 작목, 교육 수준(기초·중급·심화), 교육 형태(장기·중

기·단기), 희망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장사·방법에 대한 자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농업인의 연령, 영농 경력, 거주지 등 기본 현황부터 교육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는 향후 실질적이고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수군은 이를 바탕으로 식량·채소·과수·특용작물·축산·양봉·가공·치유농업 등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과정을 설계하고 장기·단기 교육을 병행하는 등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인구교육 진행

이우택 정책연구실장 초청

진안군은 지난 5일 군청 강당에서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이우택 정책연구실장을 초청해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준비'라는 주제로 직원 대상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해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마련됐다. 이우택 실장은 "인구변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라며 "합계출산율 0.72(2023년), 0.75(2024년)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저출산·고령화·지방인구감소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5대 인구문제를 설명했으며, 생활인구 확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제안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사랑상품권 할인을 15%로 대폭 상향

장수군은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장수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 조치는 군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권 할인은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동일하게 15% 적용되며 구매한도는 기존대로 월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이번에 관내 일부 면 소재지 농협 농자재판매소와 장수읍을 제외한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가 새롭게 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돼 생필품과 식료품 등 일상 소비 전반에서 상품권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장수사랑상품권'은 음식점, 전통시장, 주유소, 이·미용실, 병·의원, 마트 등 지역 내 1,100여 개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가맹점 목록은 장수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실무추진단 2차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5일 군청 강당에서 2025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차 실무추진단 보고회를 가졌다. 주영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진안군 각 실과소 팀장 및 부읍·면장이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홍삼 축제 담당 일부의 운영을 이끌어 가고 있다. 2차 보고회에서는 1차 보고회 이후의 진척 사항과 문제점 해결 대책 등 홍삼 축제를 위한 많은 발전 방향들이 제시되었다. 실무추진단은 이번 보고회에서 성공적인 홍삼 축제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노력해 다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빈틈없이 역할을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축제 대비 외식업소 대상 위생점검

진안군은 '2025년 진안홍삼축제'를 앞두고 8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음식점과 카페 등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5년 진안홍삼축제' 기간에 진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식업소의 위생·안전 상태와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여부 △예약 문의시 친절 응대 △시설 안전점검 등이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객 응대 요령 등 친절서비스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방문의 해를 앞두고 진안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대표적 축제인 만큼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해 '꼭 다시 찾고 싶은 진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